

“향도는 21세기 새로운 정신문화 운동”

7월 18일 ‘문향’ 창립 및 기념학술세미나 개최



박희준 동국대 교수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불법이 구현된 세계를 의미하는 ‘향(香)’.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 중 향공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능엄경> 25개 수행법 중 향과 관련된 수행법이 3가지에 이를 정도로 불교와 향의 관계는 깊다.

이런 불교향문화의 전통성을 유지하고, 현대인에 맞는 새로운 향기법을 보급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연구활동을 진행해 온 ‘우리전통향문화’를 찾는사람들 문향(聞香)이 공식창립과 함께 첫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문향은 <유마경>의 향적불품에 나오는 문사묘향의 줄임말이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문향 대표 능혜 스님은 “현재 향문화는 외형에만 치우쳐 있다”며 “우리 차와 향문화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주체적인 연구를 통해 대중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스님은 이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단절된 우리 향문화를 살리고, 향약재에 대한 의학적 접근을 통해 건강에 대한 기여도를 살피려고 한다. 또 향도(香道)로 불리

는 향문화를 제대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향도는 21세기 새로운 정신문화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향이 우리시대 삶과 혼을 말하는 새로운 정신문화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문화 인식부터 새롭게 하자”

이날 세미나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박희준 동국대 불교대학원 차문화콘텐츠학과

불교전래와 함께 향문화 발달

고려시대 매향 통해 침향문화 꽃피

향로 쓰레기통 전라 현실 아쉬워

교수는 우리 향문화의 기원을 밝히고 향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 향은 고대 동북아 제천의식 전통에서 비롯된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환웅이 세상에 내려온 산을 묘향산이라고 하고, 우리 민족이 향기로운 나무를 신단수로 삼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기원을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불교전래를 거쳐 향문화는 활짝 꽃을 피



문향 대표 능혜 스님이 창립을 고하는 흥향을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 이후 문향은 전통향 보존을 위한 연구활동에 들어간다.

는데, <삼국사기> 등을 보면 신라시대 향이 질병치료, 기원의 매개체로 활용됐다. 화랑의 다른 말인 용화향도는 향을 매개로 문친 조직이었다. 이런 활발한 향문화는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유향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고려시대에는 미륵신앙이 보급되며 땅에 향을 묻는 매향이 발달했는데, 이를 통해 침향 문화가 꽃피게 된다”고 예를 들었다.

박 교수는 “문화유산 현장에 가면 향로가 쓰레기통으로 전라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며 “우리 정신문화의 상징인 향로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현실은 우리가 아직 문화를 가꾸는 안목이 성숙하지 못함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향나무의 대표 자생지인 울릉도의 경우 일제시대, 해방 등을 거치며 마구잡이로 벌목돼 1980년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음에도 300년이 지나야 예전의 면모를 찾을 수 있을 정도”라며 “지금부터라도 향나무를 배양하는 등 생태를 복원하고, 영세한 향제조와 유통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백 금속공예가의 ‘백제금동대향로 복각’, 김종진 건국대 교수의 ‘향과 향나무’, 한기승 한의사의 ‘동의보감에 나타난 향처방의 효능’, 김성태 문화 연구원의 ‘향로 기원과 변천을 통해 본 동양 향문화 본질’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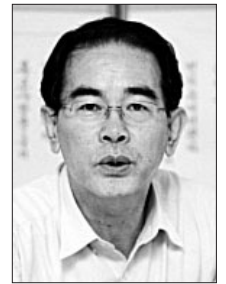
“변화 전제하는 주역, 불교와 맞닿아”

성태용 교수, <불교평론> 열린논단에서

흔히 길흉화복을 점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주역. 중국철학의 대표적인 주역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성태용 교수가 7월 17일 논사로 나선 <불교평론> 열린논단은 ‘주역과 불교’를 주제로 길흉화복의 점복과 불교의 관계 등을 고찰했다.

성 교수는 이날 “주역을 이해하는 태도에는 의리와 상수와 점복의 삼역(三易)이 있는데 이 중 철학적 논의의 의미역은 모든 변화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해석을 하기에 불교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차이점은 주역에서의 변화는 음양의 감응에서 일어나는 반면, 불교는 인과법에 의한 것”이라며 “음양의 상응관계에서 변화를 말하는 사유는 바로



성 교수는 이어 “주역의 태극·음양 등은 실재가 아

닌 만물과 만사를 대입해 해석할 수 있는 부호로 불교의 연기설에서도 말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 교수는 “점복과 상수역은 부처님께서 점복에 대한 엄격한 배척을 생각했을 때 불교와 연결되기 힘들다”며 단순히 점을 보는 것으로 주역을 풀이하는 것을 경계했다.

관계를 논적 사유로 나가게 되며, 이 점에서 또한 불교와 연결점을 가진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주역의 태극·음양 등은 실재가 아닌 만물과 만사를 대입해 해석할 수 있는 부호로 불교의 연기설에서도 말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 교수는 “점복과 상수역은 부처님께서 점복에 대한 엄격한 배척을 생각했을 때 불교와 연결되기 힘들다”며 단순히 점을 보는 것으로 주역을 풀이하는 것을 경계했다.

노덕현 기자

만해 70주기 기념 학술세미나

만해학회(회장 한계진)는 7월 25일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만해 7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만해와 근대 지식의 교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만해와 심우장’에서는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의 ‘만해와 심우장의 정신사’ △장영우 동국대 교수의 ‘심우장 시절의 만해문학’이 발표된다.

2부 만해와 근대지성과의 교류에서는 △서승석 前서울대 불문과 겸임교수의 ‘시적 상상력과 독립운동’ △고재석 동국대 교수의 ‘만해 한용운과 석전 박한영, 그 영혼의 도란’ △조미숙 건국대 교수의 ‘만해와 계초, 신문연재소설 속 말하기’ △이선이 경희대 교수의 ‘만해와 지훈’이 발표된다. (02)739-5781

노덕현 기자

“정화 당시 시대상황 면밀히 살펴야”

한일불교유학연구회 주관, 정화운동 60주년 학술세미나



7월 12일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정화운동 60주년 기념세미나에서는 당시 시대상황을 면밀히 살펴 정화운동을 재평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일불교유학연구회(회장 홍선)는 7월 12일 부산 범어사에서 정화운동 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범어사와 동산문도회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점숙 동서대 교사의 ‘근대기 대처승 문제를 둘러싼 한일 불교계의 동향’ △이재현 금강삼총대 교수의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와 불교정화 운동의 전개’ △김광식 동국대 교수의 ‘동산의 법맥과 전법 용성·성철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불교교단사연구소장 탁산 스님의 ‘4·10 승려대회 식순-기록의 분석과 사법부 판단’이 각각 발표했다.

세미나에서 제점숙 박사는 “한용운 스님과 백용성 스님은 대처문제를 두고 입장이 달랐다. 조선불교 내에서 이런 입장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과 일본불교의 대처제도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화 운동 당시 이승만 정권의 유시를

정리한 이재현 교수는 “이승만 정권은 유시를 통해 대처승을 배제함으로써 인해 비구 중심으로 승단을 구성하고 그 명분으로 불교계의 중흥을 획득하려는 목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광식 교수는 “성철 스님은 용성 스님과 동산 스님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이은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1970년 범어사 원효암에 주석하고 도반인 향곡 스님이 성철 스님을 운봉문도로 편입시키려 했으나 거부한 점이 있다. 성철 스님이 용성-동산 스님의 선택을 이었음에도 그 전범에는 후손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조계종 원로위원도문 스님은 “용성 스님은 한국불교 정화 초조로 칭해도 마땅하다”며 “동산 스님은 용성 스님의 수법제자로 그 정화정신을 이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불교유학연구회 회장 홍선 스님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불교정화운동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원로 스님 현해, 도문, 정관, 한일불교유학연구회 홍선, 고심정사 주지 원택, 범어사 주지 수불, 화엄사 한주도정, 동명불원 주지 화랑 스님 등이 참여했다.

노덕현 기자

‘임란·호란 전후 사회상과 불교상’

한국불교사학, 집중세미나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7월 27일 남양주 봉인사 지장전에서 제8차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임란·호란 전후 사회상과 불교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집중세미나에서는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의 사회로 △이정철 안동국학진흥원 교수의 ‘광해군의 대동방 시행과 수취체계 변화’ △원영성 원광대 교수의 ‘임해군의 생애와 일본 출가’ △오경후 선리연구원 전임연구원의 ‘임란·호란 전후 승역의 실제’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의 ‘조선 후기 승려의 행장기술과 비문조성’ 등이 발표된다.

고영섭 한국불교사연구소장은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주요한 사건으로 양란 전후의 급변하는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조선 백성들이 겪었던 사회상과 불교상 및 불교와 유교가 서로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공예 몰락은 불교계의 반발 때문”

이재범 경희대 교수는 신라사학회(학회장 김창겸)가 7월 19일 서강대 정화상관에서 개최한 제13차 학술발표회에서 “공예의 ‘치성광여래 사상’을 표방한 ‘왕즉불’ 사상은 왕권과 승려들이 주장하는 ‘승려즉불’ 사상과는 많은 대립을 보였으며 이러한 대립이 그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치성광여래는 천문에서 복극성을 부처로 바꿔쓰는 이름으로 공예는 스스로를 미륵이나 치성광여래의 강림으로 칭했다.

이 교수는 “공예의 종교사상에는 불교의 화엄 등과 함께 도교의 영향을 받기도 했던 치성광여래사상이 상당히 흥미웠다. 공예가 자신의 부인과 아들들을 죽인 이유도, 경전에 입각해 불법을 폐기를 바라”는 참언이 거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공예의 치성광여래사상은 선종과 교종의 결합을 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불교계의 지지를 받은 왕권에 의해 그는 몰락하게 된다”고 풀이했다.

노덕현 기자

중앙승가대 문화재·상담심리 전공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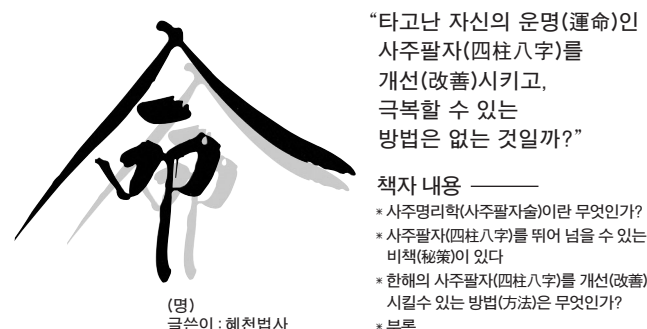
중앙승가대는 9월부터 문화재와 상담심리 전공 과목을 개설·운영한다. 중앙승가대는 지난 2011년 제92차 이사회에서 문화재학전공과 상담심리학전공을 신설하고 학부제로 개편, 2개 학부 6개 전공 체계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문화재학과는 불교학부에 상담심리학은 불교사회학부에 소속됐다. 특히 문화재 학과에서는 불교문화재학, 미술 및

건축, 성보보존처리실습, 성보박물관 운영, 무형문화의 이해, 금석학, 사지 현황과 정비 까지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해 운영한다. 상담심리학은 불교상담개론, 발달심리학, 사회심리학 등 기초과목 위주로 배우고, 향후 대학원에 전공공정을 마련해 자격증을 갖춘 전문상담사가 될 수 있도록 전문과목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팔자(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야 할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무복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당이여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영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국,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